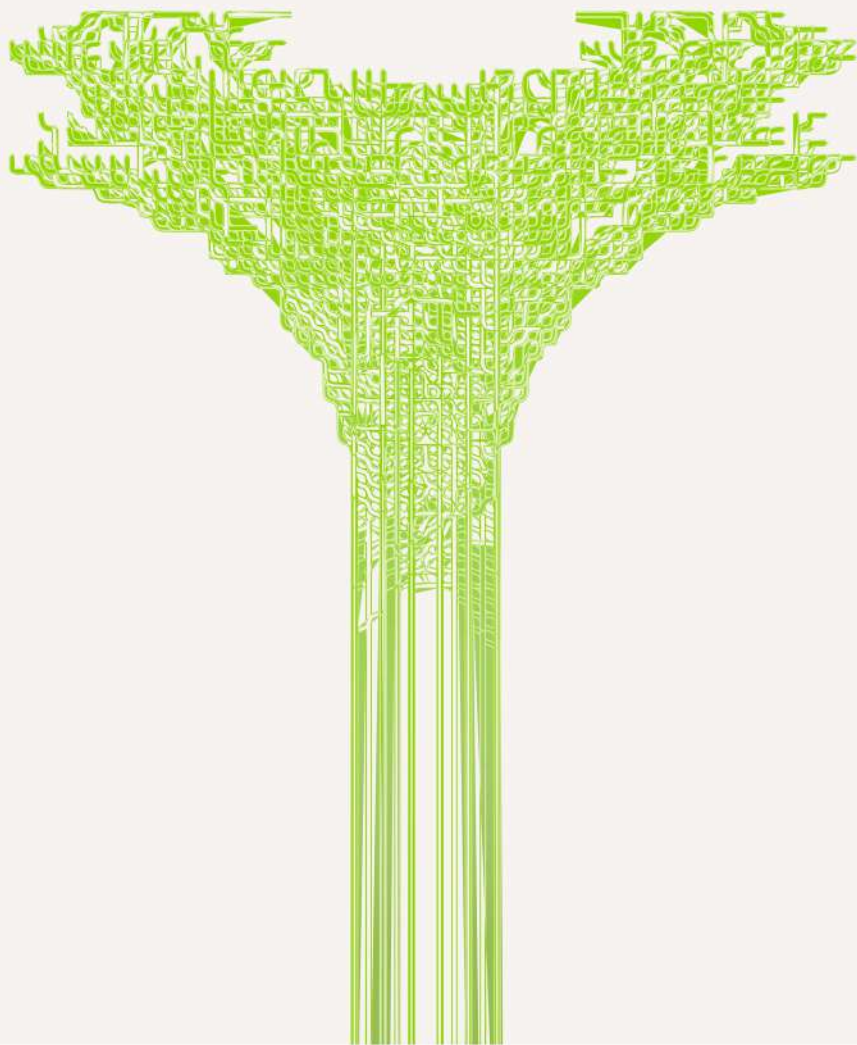


Habitat One

Sustainable Shel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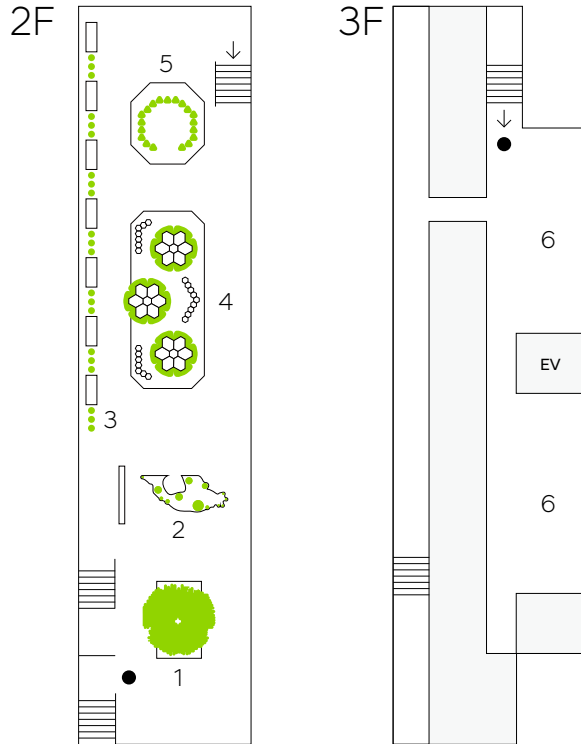
HYUNDAI
MOTORSTUDIO
BUSAN

2022. 7. 7 - 2023. 1. 8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의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운영시간 내에 자유롭게 편하게 전시 및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에 대해 궁금한 점은 가까이에 있는 구루(Guru)에게 문의하시면 쉽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Hyundai Motorstudio Busan is free entrance and open for visit anytime during operation hours.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exhibition, please ask a Guru nearby for friendly explanations

전시 안내
 Floor Plan



1. Tree One / 트리 원
2. H.O.R.T.U.S. XL Astaxanthin.g / 호루투스 XL 아스타잔틴.g
3. PhotoSynthEtica Walk / 포토신세티카 워크
4. Air of Blooms / 에어 오브 블룸
5. Inhabiting Air / 인헤비팅 에어
6. Expecting Generation One / 익스펙팅 제너레이션 원



Habitat One

Sustainable Shelter

도시는 현대인의 터전이자 시대를 움직이는 동력이며 우리의 모습이 담긴 거울입니다. 인류 문명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에 축적된 인프라는 우리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여했지만,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시는 점차 거대한 ‘탄소 생성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인류를 위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브랜드 비전을 바탕으로 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셸터(Shelter)’ 솔루션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제안하는 셸터는 창의적이며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향유하는 터전으로서 모든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전시 주제인 <해비타트 원(Habitat One)>은 탄소중립 시대를 살아갈 첫 세대인 ‘제너레이션 원(Generation One)’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 솔루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의 네번째 기획 전시인 <해비타트 원(Habitat One)>에서 바래와 에콜로지스튜디오, 두 개의 작가 그룹과 함께 구현한 셸터 솔루션을 통해 창의력과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함께 상상해 보고,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Cities ar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world as we know it. Our lives and the environment we have built for us are reflected in, and shaped by none other than cities. The infrastructure accumulated in the city, which also could be seen as the peak of human civilization, has granted us great opportunities to improve and enrich our lives. Still, as many people flock to limited spaces, the city has gradually turned into the biggest “carbon generator.”

In line with the brand vision of "Progress for Humanity," Hyundai Motor Company has been committed to developing a “Shelter” solution that could improve the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 The concept of “Shelter” proposed in this exhibition represents nature, promoting the co-existence of humanity and all other life forms on Earth as a place to enjoy a creative and sustainable lifestyle. The theme of the exhibition, “Habitat One,” represents a new form of housing solution for “Generation One,” the first generation to live in a carbon neutral era.

Hyundai Motorstudio Busan's fourth special exhibition, "Habitat One," hopes that the shelter solution proposed in collaboration with two artist groups BARE and ecoLogicStudio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imagine a sustainable future combined with creativity and technology, and share continuous efforts for the carbon-free world.

Tree One / ecoLogicStudio

트리 원 / 에콜로지스튜디오

탄소중립 세대를 위한 인공 나무

고도의 문명화로 인해 도시는 점점 커져갔고, 자연과의 공존 방법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술의 발전은 더 이상 고도화가 아닌 자연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 가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에콜로지스튜디오 역시 다가올 미래의 위기에 맞서기 위해 자연에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에콜로지스튜디오가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로봇 3D 프린터로 제작한 10m 높이의 '트리 원'도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연을 탐구한 결실입니다. '트리 원'은 탄소중립시대의 첫 세대인 제너레이션 원을 위한 상징물이자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또한 다 자란 나무와 동일한 광합

성 및 탄소 포집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녹조류인 '알게(Algae)'가 첨가된 바이오 폴리머를 사용해 3D 프린팅 기법으로 구현한 '트리 원'은 실제 나무처럼 숨을 쉬고 산소를 생성하며, 작품 내부에 저장한 탄소를 활용해 전체 구조가 호흡합니다. 인공 미생물학을 연구한 작가의 지식과 인공지능 기반 설계가 결합된 '트리 원'은 새로운 유형의 생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성과 소멸이라는 순환 시스템을 내재한 바이오-디지털 나무인 '트리 원'은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인공 구조물들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나무가 될 것입니다.



An artificial tree for the generation of a carbon neutral world

The advance of civilization was accompanied by the expansion of cities, which in turn raised the need to find a way of coexistence between cities and nature. In consideration of this, the trajectory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has also shifted away from blindly pursuing advancement, and closer to restoring nature to its natural state. At the forefront of this movement is ecoLogicStudio. The 10m tall *Tree One*, specially commissioned for this exhibition and robotically 3D printed, was also born out of the studio's research efforts on finding nature-inspired solutions against possible near future crises. *Tree One* is both a monument for Generation One—the first generation to live in a carbon neutral world—and an indicator that signals the coming of a new age. It also has the same photosynthetic and carbon capturing potential of a mature tree. *Tree One* was fabricated using 3D printing with algal bio-polymers, and functions just like a real tree breathing and generating oxygen while storing the carbon molecules. The artists' knowledge in synthetic microbiology, combined with AI-led design of the overall structure, presents us with an artwork that could also be regarded as a novel form of an organism. It is an AI tree that follows the circle of life and death, symbolizing a new beginning by hinting at its potential to replace built structures that have become the source of pollution.

H.O.R.T.U.S. XL Astaxanthin.g / ecoLogicStudio

호르투스 XL 아스타잔틴.g / 에콜로지스튜디오

도시와 자연의 상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조직체

주거용 건물과 사무용 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에콜로지스튜디오는 자연 시스템의 생태지능에 기반한 '호르투스 XL 아스타잔틴.g'라는 작품을 통해 도시의 빌딩숲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콜로지스튜디오는 산호 내부의 세포와 공생하는 미세 조류가 광합성을 통해 산호에게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산호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의 반투명 뼈대 구조에는 '트리 윈'처럼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드는 젤리화 된 알갱이가 채워져 있습니다. 광합성으로 활성화되는 그들의 대사작용은 태양광을 산소와 바이오매스로 전환시킵니다. 작가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살아있는'이라는 개념을 현대 도시에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체로 구현했습니다. '호르투스 XL'은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고해상도로 제작된 대형 바이오 조형물로 인간과 그 외의 생명체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A living bio-structure demonstrating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of cities and nature

As one of the attempts to improve the condition of housing and office facilities, ecoLogicStudio offers a solution that could purify the polluted air in cities congested with buildings through the work *H.O.R.T.U.S. XL Astaxanthin.g* based on ecological intelligence found in natural systems. The behavior of microalgae that live within coral tissues and energy creation by photosynthesis inspired the artistic process. In a similar mechanism to *Tree One*, the translucent skeletal structure is inoculated with jellified photosynthetic algae. Their metabolisms, powered by photosynthesis, convert radiation into actual oxygen and biomass. The artists took the concept of "living" from nature and materialized it into a new form of an organic body that could address the needs of a modern-day city. *H.O.R.T.U.S. XL Astaxanthin.g* is a large scale, high-resolution 3D printed bio-sculpture receptive to both human and non-human life.



PhotoSynthEtica Walk / ecoLogicStudio

포토신세티카 워크 / 에콜로지스튜디오



근미래 에너지 소재의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배양 기관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의 창가를 따라 배치되어 전시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포토신세티카 워크’는 광합성을 통해 실내의 공기를 순환시킵니다. ‘포토신세티카 워크’의 취지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광합성 기술’과 ‘산책로’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작가는 관람객들이 작품 주변을 산책하듯 이동하며 도시의 일상에서 잊혀졌던 자연의 순환을 경험하기를 희망합니다. 관람객들은 전시장 내부를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창가의 배양기관을 눈에 담고 알개가 산소를 내뿜으며 내는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포토신세티카 워크’는 전시장의 내부 온도를 낮추도록 창가에 배치되었으며, 배양된 알개는 식품을 비롯해 ‘트리 원’의 구성요소인 바이오 폴리머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은 에콜로지스튜디오의 주요 소재인 알개의 배양 및 활용을 체험하며 탄소중립 방안과 근미래 기술, 그리고 작품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Growth chambers that exemplify near future circular economies of matter and energy

PhotoSynthEtica Walk, installed along the wall of windows of Hyundai Motorstudio Busan, supplies fresh air within the museum space through photosynthesis. As the title indicates, *PhotoSynthEtica Walk* invites the visitors to walk through “the photosynthetic energy trail.” It is intended for the visitors to take a walk around the growth chambers and experience the circular process of nature that’s been missing from the urban life. Growth chambers are arranged to capture the visitors’ attention effortlessly, accompanied by bubbling sounds the algae make during oxygen generation. *PhotoSynthEtica Walk* is installed along the windows for the added function of reducing internal temperatures, and the algae cultivated in the chambers can be applied in diverse ways — ranging from food products to bio-polymers, one of the main compositions of *Tree One*. Visitors can gain a firsthand experience on how microalgae—ecoLogicStudio’s main material of choice—are cultivated and can be applied, all the while understanding way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technologies in the coming future, and the underlying message of the exhibits.

Air of Blooms / BARE

에어 오브 블룸 / 바레

지속가능한 환경을 꿈꾸는 모두를 연결하는 공공 휴식형 셸터
바레가 상상하는 새로운 시대에서의 셸터는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는 공간이자 장소로, 자유로운 이동과 함께 스스로 구축되고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에 기반해 바레는 가까운 미래 도심 속 공공공간에서의 휴식이 필요한 때에 나타나고 이동하는 셸터로 '에어 오브 블룸'을 제안합니다. '에어 오브 블룸'은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모듈형 로봇 유닛 '에어리Air(e)'들의 조합으로, 낮 동안에 태양을 따라 움직이며 작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전지 패널을 통해 축적합니다. 또한 접근하는 사람의 수를 파악 후 필요한 만큼 서로 결합되어 적합한 크기의 벤치나 휴식 장소를 만들고, 다양한 미디어 장치와 연결되며 일시적으로 인공 환경을 조성합니다. 가상의 디지털 자연과 현실의 도시가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에어 오브 블룸'은 셸터에 머무르는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동체적 경험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더불어 사물-사람-자연의 공존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체 사이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공간을 지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한 곳에 고정되어 방치되지 않고, 필요한 곳을 찾아 이동해 사람과 반응하며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새로운 셸터의 디자인입니다. 매번 새롭게 생산하고 쉽게 폐기하는 물건이나 인공구조물과는 다르게, 소비의 사회를 넘어 탄소배출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Shelter as a public park that connects everyone dreaming of a sustainable environment

BARE imagines a shelter for the new era. It is a space and place equipped with mobility, allowing for active response to various changes, and also a system capable of self-establishment and energy generation. Building upon such ideas, BARE suggests *Air of Blooms*, as a shelter intended to serve as public resting stations in near future cities. *Air of Blooms* consists of constantly moving modular robot units called *Air(e)*, and follows the sun during the daytime to charge energy through its solar panels. The units assemble themselves into an optimal configuration of seats and resting spaces, all based on an automatic assessment of the number of users approaching the structure. *Air of Blooms* also allows for connection with various types of media devices, thereby creating a temporary artificial environment. Combining virtual and digital nature with real-world urban elements, *Air of Blooms* designs a new community experience for those staying in the shelter. Furthermore, the work seeks to create a space that connects diverse communities by pursuing the coexistence of things, humans, and nature. It is the design of a new shelter that is not fixed in one place but moves in search of necessary places, reacts with humans, and moves like a living organism. Unlike new and easily discarded items or artificial structures, this shelter opens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 sustainable environment that reduces carbon emissions beyond the society of consumption.



바레, 에어 오브 블룸, 2022, 로봇 유닛 단위 <에어리> 조합, 라이다 센서, 다채널 영상, 커스텀 LED 디스플레이, 공기구조물, 유기태양전지(OPV) 모형, 키네틱 컨트롤 시스템, 약 1,500×600× 500cm

BARE, *Air of Blooms*, 2022, Assembly of customized robot units-Air(e), lidar sensor, multi-channel video, customized LED displays, air-inflated blobs, OPV panel mock-ups, kinetic control system, app, 1,500×600×500cm

Inhabiting Air / BARE

인해비팅 에어 / 바래



지구의 모든 종을 위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맞춤형 거주지

‘인해비팅 에어’는 일시적으로 머무를 공간이 필요할 때 최적의 장소를 찾아 스스로 결합하고 해체하는 쉼터를 상상하며 제작된 작업입니다. 이동성이 강화된 이 작품은 가까운 미래 전 세계 각지에 세워지게 될 수소 및 전기충전소를 거점공간으로 삼아 작은 크기의 모듈형 로봇 유닛인 ‘에어리Air(e)’가 모이고 흩어지는 방식으로 구축됩니다. 쉼터 안과 바깥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도록 고안되어 도시의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자연 속에서 현대인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고, 기후위기 속 동식물을 위한 대피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쌓아 올리는 일반적인 건축의 방식과 달리, 공중에서 결합되어 땅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 동안 험한 지형이나 접근이 어려웠던 장소에 대

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기능적으로는 내부에 머무르는 사람 또는 동식물의 수와 크기에 맞게 공간의 크기가 변형되며, 외부의 환경을 스스로 판단해 단열효과를 지닌 공기 보호막을 수축하거나 팽창하는 방식으로 실내 환경을 조절합니다. 각각의 로봇 유닛 ‘에어리Air(e)’는 작동 및 사용자의 미디어 환경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 전지 패널로 직접 생산하고, 개인 또는 공유 미디어로도 사용되며 거주자와 외부의 환경 사이에 끊임없는 소통을 제공합니다. 이 쉼터는 사용 후, 다시 원래 모듈 단위로 해체되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다양한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해비팅 에어’는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내며 가까운 미래에 탄소중립이 실현된 사회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Sustainable custom housing for all species on Earth

Inhabiting Air embodies BARE's vision of a self-assembling/disassembling shelter that locates the optimal place for a temporary stay. It is equipped with advanced mobility and composed of small modular robot units, called *Air(e)*, that act as mobile building blocks. Hydrogen and electric charging station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will act as terminals to assign and operate the shelters. The shelter's active response system to environmental changes both inside and out supports inhabitants' daily life in nature without urban infrastructure, and it could also be a haven for wildlife in times of climate crisis. Unlike general construction methods starting from the ground up, BARE suggests assembling mid-air before landing, thereby opening up the possibility of reaching rough terrain and inaccessible areas. Functionally, *Inhabiting Air* transforms in proportion to best accommodate the number and size of people or wildlife, and its indoor condition is maintained at an optimal level through self-detection of outside environments. Each *Air(e)* has solar panels that produce energy for operation and personal/shared media devices and constant communication between users and external environments. After use, the shelter is dismantled to its original form without leaving any trace, and can be modified and reused for various purposes. *Inhabiting Air* invites us to a society where carbon neutrality has been realized in the near future, expressing the willingness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Expecting Generation One

익스펙팅 제너레이션 원

탄소중립, '제너레이션 원'을 기다리며

현대자동차의 비전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는 인류와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가장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이동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아이오닉 브랜드를 시작으로 전동화 패러다임으로 선제적으로 전환하고, 20여년간 수소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기는 여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 현대자동차는 그룹 차원의 2045년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고, 재생에너지 100%를 의미하는 RE100 움직임에 동참하여 기업 사용 전력량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고 가까운 미래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여 우리의 후손은 탄소중립 시대를 살아갈 첫 번째 세대인 '제너레이션 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너레이션 원'의 도래는 지구가 탄소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알리는 표지이자, 우리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최소한의 책임을 다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인류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Carbon neutrality, expecting “Generation One”

Hyundai Motor's vision "Progress for Humanity" is our will to do the right thing for humanity, society, and a better future. As a mobility solution provider, Hyundai Motor is taking the lead in advancing a sustainable future by preemptively shifting the fundamental value of movement to a motorized paradigm by starting with the IONIQ brand and by making efforts to establish a hydrogen society for the past 20 years.

In 2021, Hyundai Motor announced its commitment to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45 and joined the global renewable energy expanding initiative RE100. With these efforts, Hyundai Motor hopes to reduce the global temperature rise to 1.5°C and achieve carbon neutrality in the near future, so that our descendants will become the first generation to live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The coming of “Generation One” would indicate that the world is now free from carbon emissions, and also signify that we have at least done our part in our time for the generation that is to come after us. Hyundai Motor recognizes and listens to those on the frontlines of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and will continue its course towards carbon neutrality by 2045.

Artists

BARE

바레

바레는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도시의 환경과 시간에 조응하는 사물의 생산과 순환 체계에 관심을 두고 2014년부터 리서치 기반의 건축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재료 분류 수집 로봇에서부터 키네틱 파빌리온, 장소 조건에 적응하며 형태를 달리하는 입체미디어 설치물 등 다양한 환경에 개입하는 크고 작은 장치들을 고안하는 프로젝트들을 선보이며, 운송과 재조립이 용이한 모듈식으로 작업을 접근함으로써 여러 용도로 재구축 되는 건축의 생산과 순환에 대한 고민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건축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며, '조립(assembly)'이라는 설계 및 제작 방법론과 '공기(air)'로 표상되는 비건축적 재료의 결합을 통해 가벼움의 건축을 실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최근 활동으로는 개인전인 <어셈블리 오브 에어>(백토리2, 2021)가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의 협업을 통해 선보인 '에어빔 파빌리온',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에어 빈'이 있다.

Since 2014, BARE is committed to the exploration of architectural practice through research, with focus on the production of things and their lifecycle that responds to the dynamically changing urban environment. The studio's portfolio includes projects that involve the development of various apparatus, from a robot that collects cities and sorts by-products, to a kinetic pavilion and three-dimensional media installations that transform by adapting to the surrounding conditions. Employing an approach based on modules for easy transport and assembly, and with added features of reconfiguring constructed structures to meet urgent needs and disappear afterwards, their practice encourages a deep contemplation on the lifecycle of architecture. The studio has been exploring the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and the environment, continuing their experiments with integrating "assembly" (as a design and production methodology) and "air" (representing non-architectural material), all with the aim of realizing "the architecture of lightness." This idea was showcased in a recent solo exhibition, *Assembly of Air (Factory2, 2021)*, with past major works including *Air Beam Pavilion*, in collaboration with KAIST, and *Air Bean*, their latest work in pneumatic structures which was acquired for the permanent collec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 2022 <감각의 공간, 워치 앤 칠 2.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Watch and Chill 2.0: Streaming Sense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eoul
- 2021 <크로스로드, 어떤 도시에 살 것인가>,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 (서울전 큐레이터)
CROSSROADS, Building the Resilient City,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1, Seoul (Curators of Seoul Exhibition)
- 2019 <한국현대건축 세계인의 눈 1989 - 2019>, 한국-헝가리 수교 30주년 특별전, 주헝가리 한국문화원, 부다페스트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 Cosmopolitan Look 1989-2019, Special exhibition to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Hungary
- 2018 <국가 아방가르드의 유령>, 제16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한국관, 베니스
Spectres of the State Avant-garde, Korean Pavilion, 16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la Biennale di Venezia, Venice

Project by BARE

Directed by : Jinhong Jeon, Yunhee Choi **Project Management :** Yena Ku **Project Team :** Yejin Joe, Jiyeon Ahn, Haein Heo **Archive Edit :** Sumin Lee **Animation :** Jisu Choi **LED Video for Air of Blooms :** Yaloo **Technical Advice :** Seoncheol Cho, Donghoon Yi **Production & Installation :** Line System Co., Ltd.

ecoLogicStudio

에콜로지스튜디오

클라우디아 파스케로와 마르코 폴레토(Claudia Pasquero, Marco Poletto)가 2005년 런던에서 공동 설립한 에콜로지스튜디오는 건축환경을 위한 바이오테크놀로지에 특화된 건축 및 디자인 혁신 스튜디오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상쇄하고 나아가 오늘날 도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자연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모색한다. 박테리아와 미생물의 작동 방식에 대한 연구를 근간에 둔 에콜로지스튜디오는 도시의 녹지화를 구현하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2021년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선보인 '빗 바이오 봇'을 비롯하여 '포토신네틱카 커튼', '에어 버블', '바이오 팩토리' 등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도심 속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생태학적, 미학적 관점을 담아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그들이 시각화한 미래의 유토피아적 바이오시티를 통해 탄소 중립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감을 느낄 수 있다.

ecoLogicStudio is an architecture and design innovation firm specialized in biotechnology for the built environment. Co-founded in London in 2005 by Claudia Pasquero and Marco Poletto, the studio is currently developing scalable nature-based solutions to the many challenges facing contemporary cities in their quest to carbon neutrality and to offset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Through research on bacteria and microorganisms behavior, the studio has built a unique portfolio of projects that effectively achieve urban greenification. Their diverse array of works—including *Photo.Synthetica Curtain*, *Air Bubble*, *Bio Factory* and *BIT.BIO.BOT*. which was built for the Venice Architecture Biennale 2021—convey the artists' insight on the possibility of enabling coexistence of humans and nature within the urban environment, both ecologically and aesthetically. This exhibition features a utopian bio-city of the future as envisaged by ecoLogicStudio, suggesting a clearer step towards carbon neutrality.

- 2022 <월드 오브 네트워크>, 퐁피두센터 기획전, 파리
Worlds of Networks, thematic exhibition, Centre Pompidou, Paris
- 2022 <태초의 아름다움. 태초의 흔적>, ZKM 미디어아트센터 기획전, 칼스루에
The Beauty of Early Life, Traces of Early Life, thematic exhibition, ZKM, Karlsruhe
- 2021 2021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 글래스고
2021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 Glasgow
- 2021 <우리는 어떻게 공생할 것인가>,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베니스
How Will We Live Together?, Venice Biennale of Architecture, Venice

Project by ecoLogicStudio

Project Team : Claudia Pasquero, Marco Poletto, Konstantinos Alexopoulos, Matteo Baldissarra, Konstantina Bikou, Michael Brewster, Haoyi Chen, Korbinian Enzinger, Terezia Greskova, Maria Kuptsova, Alessandra Poletto, Emiliano Rando, Qing Tang, Xiao Wang **Academic partners :** The Synthetic Landscape Lab at Innsbruck University (Ioud), The Urban Morphogenesis Lab at the Bartlett London (UCL) **Consultants :** Algomed, Around Social, Beijing Dileyou, The CREATE Group (SDU), Ecoduna, Extrudr, Nagami, YIP engineering.

We are all Expecting Generation One, the first generation that will live carbon neutral by our efforts against climate change.

Hyundai is in progres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45.

곧 만나게 될 제너레이션 원을 우리가 함께 기다립니다.
탄소중립 사회를 살게 될 첫 번째 세대인 제너레이션 원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기후변화에 맞섭니다.

현대자동차는 2045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https://motorstudio.hyundai.com/busan>



운영시간

10:00 - 20:00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신정 당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익일 휴관)

가이드 투어

10:00 - 17:00

전문 구루(Guru)와 함께

디자인 전시를 더욱 풍부하게 관람해보세요.

진행언어: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투어시간: 30분 내외(가이드 수신기 제공)

단체투어

단체 관람을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899-6611)로 연락주세요.

예약방법

사전예약

홈페이지: <http://motorstudio.hyundai.com/busan>

고객센터: 1899-6611

현장접수

안내데스크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당일 사전예약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Opening Hours

10:00 - 20:00

(Closed on the first Monday of every month, January 1st, the day of Lunar New Year and Thanksgiving plus the following day)

Guided Tours

10:00 - 17:00

Explore the design exhibition with Guru expert.

Available Languages: Korean / English / Chinese

Tour Time: Approx. 30 minutes(audio guide equipment provided)

Group Tours

If you wish for a group tour,

please contact Customer Service(1899-6611).

Making Reservations

Advance Tickets

Website: <http://motorstudio.hyundai.com/busan>

Customer Service: 1899-6611

Onsite Ticketing

Please inquire about ticket purchase at the information desk.

Only available if the advance tickets for the day have not sold out.



본 인쇄물은 미래 세대를 위해 FSC® 인증 인쇄용지에 공기를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되었습니다.

This brochure is printed using soy ink on FSC® certified printing paper for our future generations.